

월간 내이

NEXT UP!
미래로 나아가요!

메타버 스 그 리 고 리 일 자 리



이경태 뉴스핌 기자의
테마 인터뷰는 18p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렌드 캐치업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내일로 붙업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츠

날마다 레벨업

팀장님 MBTI는 뭘까?





여름의 길목에서

나뭇잎은 더욱 초록으로 짙어지고
불어오는 바람에 여름의 향기가 묻어나는 6월입니다.

힘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 순간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반년이 길다면 길지만 돌아보면 항상 짧게만
느껴지는데요.

아쉬운 점들이 있다면 이번 달을 전환점 삼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획의 달이 되기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월간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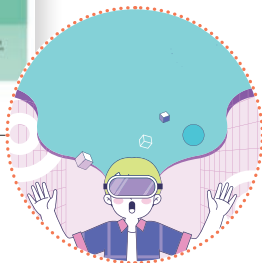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계획의 달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Contents



Chapter 1 트렌드 캐치업!

- 08 **톡톡톡**
생각보다 가까이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 10 **트렌드 인사이드**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톺아보기
- 16 **알아두자고용**
메타버스는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 18 **내일이 만난 사람**
메타버스 세상이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이경태 뉴스핌 기자
- 24 **정책모음, ZIP**
고용노동부와 함께
메타버스에 탑승해요!





Chapter 2 내일로 불업!

- 34 뉴 스타트**
스스로 만든 두 번째 기회
-김현서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 38 청년꿈터**
푸른 미래 가득한 청년의 꿈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민성 씨
- 42 곳&곳 오피스**
하나의 대명사로 성장하기까지
-아이버스터
- 46 더불어 세상**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잇
- 50 고용노동 뉴스**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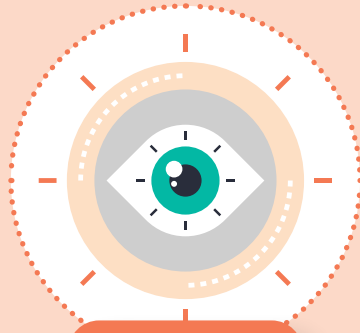
- 62 미디어 속 노동위기**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 66 JOB툰**
난나의 취준일기
- 68 디지털휴먼**
가상 현실 기술, 어디까지 왔나?
- 70 하이파이브**
직장동료과의 궁합은? 팀장님 MBTI는 뭘까?
직장인의 MBTI
- 72 주말에 뭐 할래?**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쟁 테마 문화 큐레이션
- 76 플레이리스트**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 78 그린 리추얼**
지구를 지키는 이유있는 편식
함께 '하루 한끼 비건' 실천해요!
- 80 내일스타그램**



고용노동부 소식지 <내일>

통권 강남 라 00389(통권 565호)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대변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82 홈페이지 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 기획·제작 큐라인



Chapter 1

트 렌 드



캐 치 업

우리 함께 세상 읽기

메타버스 그리고 일자리

우리 곁에 등장한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
낯선 세상 앞에 막연한 두려움이 일기도 하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된
메타버스를 피해갈 길은 없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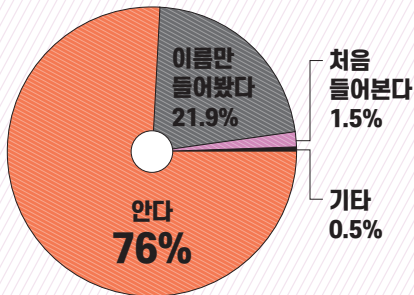
생각보다 가까이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타버스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설문은 <월간내일> 독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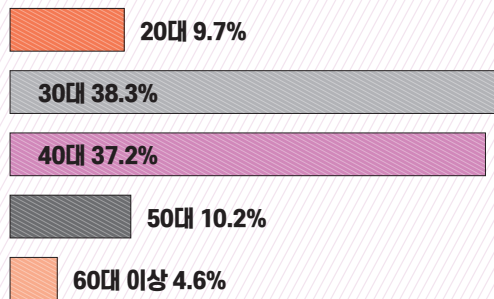
(2022. 5. 10~16. 조사 진행 / 월간내일 독자 196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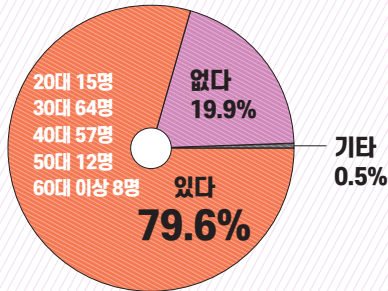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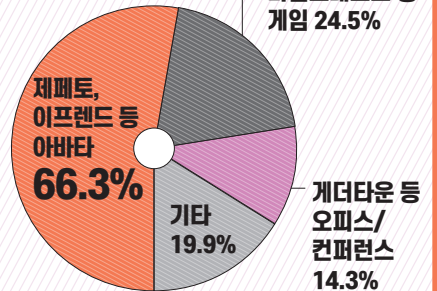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본 적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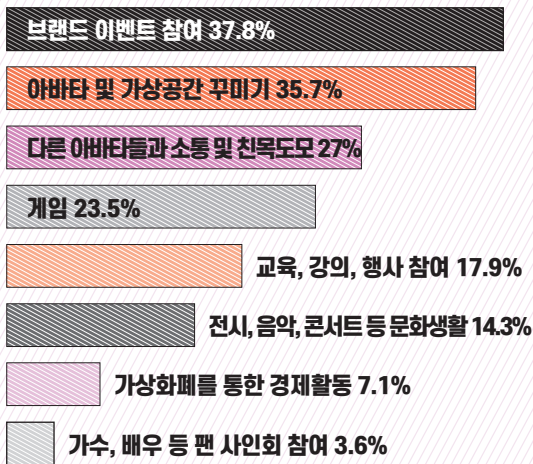


경험해본 메타버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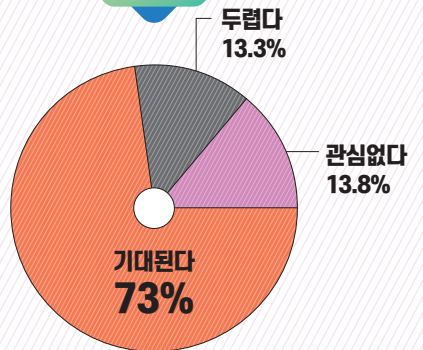


메타버스에서 어떤 활동을 해봤나요?

(중복 응답 가능)



메타버스가 바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세계의 등장! 메타버스 톺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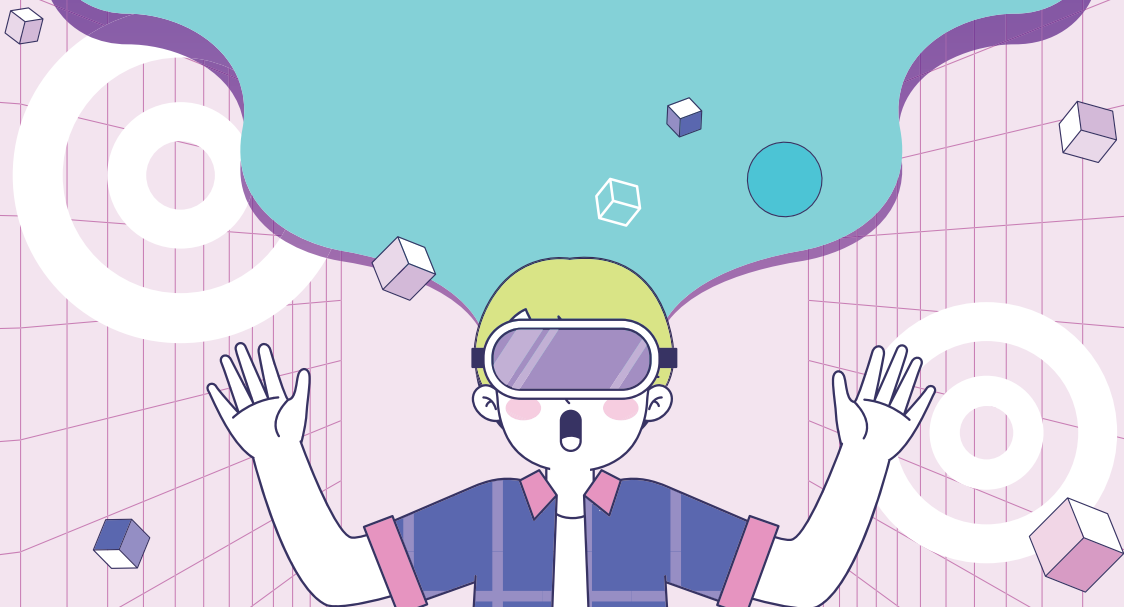
이제 메타버스 없이 트렌드를 논할 수 없다는데... 아직도 메타버스, 알쏭달쏭하지요?
자, 이 정도만 기억해두면 어디 가서 '메타버스'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것이 알고 싶다!

메타버스(metaverse)란 가상·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에서 현실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름은 낯설지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를 알고 있거든요! 사이월드의 미니홈피에서 아기자기하게 내 방을 꾸렸던 기억나시죠? 미니룸 역시 메타버스의 일종인데요, 지금은 그 단계에서 한층 더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미니룸 안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진을 찍고 공부도 하는 등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메타버스 안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가능성을 예견한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등 정보통신 업계 굴지의 기업들 또한 관련 사업에 뛰어들면서 메타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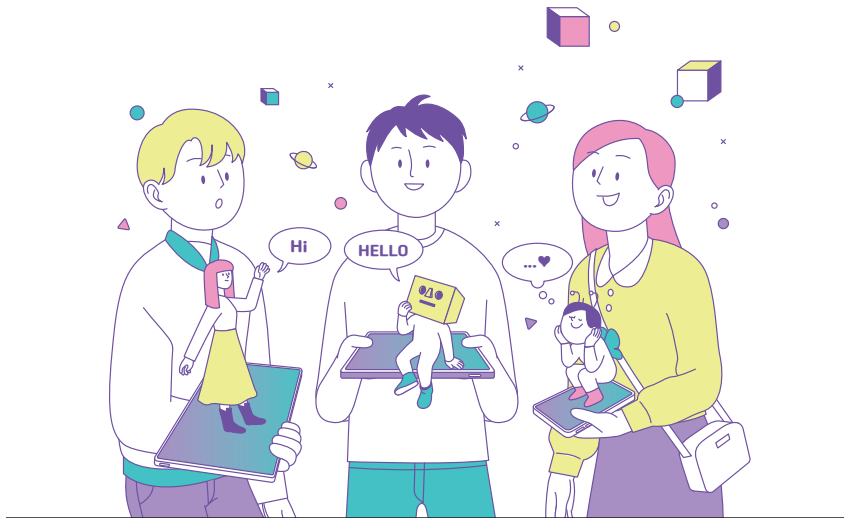


메타버스는 게임 아니야?

‘제페토’, ‘동물의 숲’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이 대부분 게임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게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타버스는 게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들여다보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메타버스의 종류

현실을 증강			
외적인 투영	<p>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p> <p>현실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한 그래픽을 겹쳐 보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궁터나 특정 건축물을 촬영하면 새롭게 짓거나 리모델링할 건물이 화면에 중첩되어 보이는 ‘프롭테크 프로그램’이나 인기게임 ‘포켓몬 고’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일상기록 (Lifelogging)</p> <p>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SNS가 이에 해당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캐릭터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도 나를 표현하는 일종의 ‘아바타’ 라는 사실!</p>	내적인 몰입
	<p>거울세계 (Mirror Worlds)</p> <p>실제 세계를 가능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가상세계를 열람함으로써 직접 가보지 않고도 현실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지구를 그대로 본 판 ‘구글 어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p>	<p>가상세계 (Virtual Worlds)</p> <p>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구현한 것입니다. ‘제페토’, ‘동물의 숲’, ‘이프랜드’ 등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게임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설계한 아바타를 통해 현실세계와 매우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가상세계 안에 매장을 열고 있어요.</p>	
현실을 모방			



요즘 핫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어디?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 알기는 힘든 일이니 가장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19와 함께 폭발성장,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하 모동숲)’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의 하나입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2020년 초에 출시돼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2020년 당시 미국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 ‘모동숲’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이 오지요? 게임을 시작하면 나를 나타내는 캐릭터(아바타)와 아무것도 없는 섬이 주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내 섬을 꾸미면서 게임을 진행해나가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너굴사장에게 대출을 받거나 단순 노동을 통해 자재를 구하는 등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설정 덕분에 ‘과몰입’을 피하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다른 이용자가 만든 마을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나의 공간에 초대할 수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던 코로나 시기에 정말 큰 사랑을 받았답니다.



**미국에는 로블록스,
한국에는 제페토**

미국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 ‘로블록스’라면,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네이버제트(Z)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다양한 콘셉트를 가진 월드맵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맵을 선택해 들어가서 구경하고, 설치되어 있는 놀이를 즐기거나, 미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다른 아바타와 만나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으며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월드맵에서 노는 것만으로 제페토를 체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페토 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SNS거든요! 핫플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현실과 별도로 메타버스 안에서 또 다른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죠. 제페토 안의 SNS 계정까지 관리해야 Z세대의 진정한 인싸로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메타버스 속 뜨는 셀럽들

얼핏 보면 진짜 사람 같이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버추얼 휴먼(Virtual Human)’은 이미 SNS나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의 SNS 팔로워가 300만까지 올라가는 등 팬덤이 형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들을 홍보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메타버스에서 가장 핫한 셀럽들을 소개합니다!



6인조 가상 걸그룹, 이세돌(이세계 아이들)

릴파, 아이네, 비찬, 고세구, 징버거, 주르르로 구성된 6인조 가상 걸그룹으로 VR챗(Chat)에서 활동합니다. 오디션 과정부터 팬미팅까지 현실감 있는 콘텐츠가 포인트! 다른 버추얼 휴먼에 비해 그래픽 디테일은 떨어지지만 노래가 좋아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등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고 봐도 깜짝 놀라는 사실감! 루이(Ruu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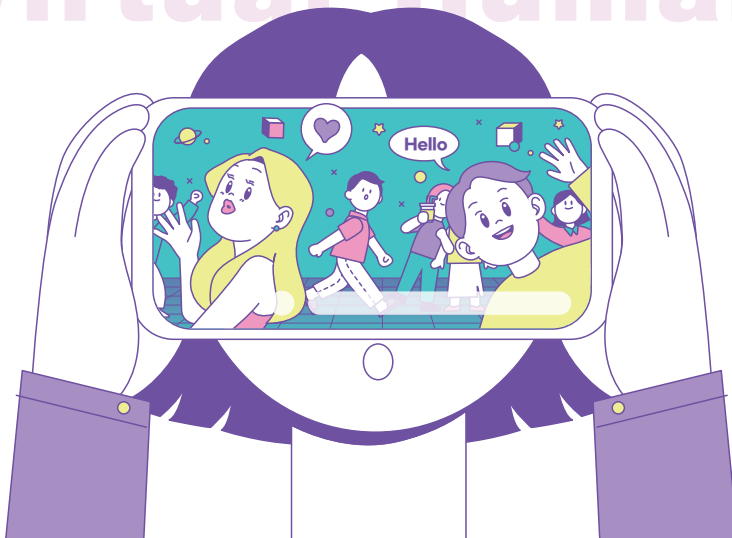
구독자 5만 명 이상을 보유한 가상 유튜버로, 유튜브에서 '루이커버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몸과 목소리에 AI 기술을 더해 만들어낸 버추얼 휴먼인데요, 표정과 몸짓이 매우 사실적이어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이미 대세!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Rozy)

국내 최초 가상 인플루언서로 여행과 서핑, 스케이트보드, 프리다이빙,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여성입니다. 2020년 활동을 시작, 사실적인 그래픽과 트렌디한 패션으로 Z세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Virtual Human



메타버스, 비즈니스를 만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메타버스가 게임으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죠. 메타버스는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점점 더 존재감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비즈니스에도 당연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Metaverse Business





가상 오피스, 게더타운

게더타운은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회의, 강의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가상 오피스 공간이에요. 줌회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간단히 차이를 설명하자면, '줌(Zoom)'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대면 회의' 플랫폼이라면, 게더타운은 아바타를 이용하는 '비대면 회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 미니룸 감성을 소환시키는 다소 투박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조작법이 간단하고 직관적이며, 여럿이서 이야기하는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어 학교나 회사의 소모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의 온라인 채용설명회, 지방의 원격근무 가상오피스, 연세대학교의 동아리 박람회 등이 게더타운 대표 활용 사례로 꼽힙니다.

전 세계 바이어들이 모이는 메타버스 박람회

판로를 찾는 기업과 바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메타버스 박람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박람회장의 모습을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구현해놓고 바이어를 초청해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020년 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에서 국내 첫 '조선 해양 온라인 박람회'를 개최해 국내외 기업 100곳이 부스를 차리고 70개국 1천 500여 명의 바이어에게 제품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선주사와 울산 중소기업 간에 1억 달러 수출 업무 협약이 체결되기도 해 화제가 되었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박람회들이 온라인으로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메타버스 박람회는 기업에게 효율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일자리를 어떻게 바꿀까?

메타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인만큼, 사회·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불러올 일자리 시장의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IT, 디자인 인력 수요 급증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이에 IT와 디자인 직무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020년과 2021년 '사람인'에 등록된 메타버스 관련 채용 공고량을 비교한 결과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210.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메타버스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설명회, 면접도 메타버스에서!

올해 1분기 삼성, 롯데, CJ 등 내로라하는 국내 대기업들이 '메타버스 채용설명회'를 열었고 일부 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신입사원 면접까지 진행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방식에 구직자들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지난 3월 '사람인'에서 구직자 2,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메타버스 채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곳에서 접속할 수 있어서'(60.6%, 복수응답)였습니다. 지원한 회사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채용 전형을 치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에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이 연합으로 '메타버스 취업 박람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취업과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늘 각 기업 및 기관의 메타버스 관련 소식에 귀를 열어주세요.



이런 직업이 뜬다!

산업구조가 변화되어 가면서 유망직종도 바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과 함께 새롭게 뜨는 직업들을 소개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들도 물론 많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이 많다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는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이 사용할 3D 아이템을 제작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아바타의 외형(의상,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을 꾸미는 아이템이나 건축물의 모양, 배경물 등을 만드는 것을 모두 포함해요. 시각디자인이나 3D 모델링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건축가

메타버스 건축가는 가상세계에서 공간을 설계하는 직업입니다. 메타버스 건축가(혹은 메타버스 공간 디자이너)는 현실세계처럼 메타버스 안에 학교, 편의점, 공연장, 놀이공원, 행사장 등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데요, 단순히 블록을 쌓아 공간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 안 사용자 경험'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바타 디자이너

메타버스 이용자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만들어 활동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바타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해주는 직업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아바타 패션 디자이너, 아바타 코디네이터, 아바타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아바타를 성형해주는 의사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바타 디자이너는 단순히 아바타의 외형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아바타를 만든다면 기업의 비전과 문화를 상징하는 아바타를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바타가 고객을 만났을 때의 응대 방법 등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 것이죠!

XR 콘텐츠 기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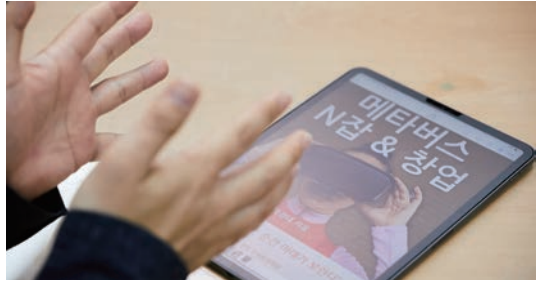
메타버스에 기반한 모든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플랫폼과 콘텐츠 기획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XR(확장 현실) 콘텐츠 기획자는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짜고, 기능 구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합니다. XR 콘텐츠 UI/UX 설계와 상세 스토리보드 작성 전반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XR 콘텐츠 상용화를 수행하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이 만드는 새로운 일자리

이경태
뉴스핌 기자 · <메타버스 N잡&창업> 저자



“그저 기회가 널려있을 따름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메타버스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경태 기자는 아직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은 메타버스 시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우리가 반쯤 열린 문틈에 고개를 잠시 들이밀고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태 기자를 만나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메타버스 세계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Q _ 신간 <메타버스 N잡&창업>을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접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제가 메타버스 관련 책을 출간할 것이라곤 생각지도 않았죠. 일하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제페토 앱을 잠깐 써보고 별거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후에 2억 4,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는 서비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중반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제페토가 제 머릿속에서 합쳐지면서 가만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앱 개발과 서비스 기획 등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비로소 그동안 했던 활동 방향 상당 부분이 메타버스로 향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메타버스에 접근하며

이미 있는 레이더 차트를 가지고 잘하는 일, 즐길 수 있는 일, 배우고 싶은 일을 조합해 자신을 컨설팅해보니 전자책을 내는 것이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작업 기간만 따지면 석 달 정도 걸렸어요.

Q _ 메타버스가 가능한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이 분야별로 메타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역시 다양하며 각자 다를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일지를 따져본다면, 글썬요. 저는 개수를 셀 수 없다고 봐요. 모든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알기 쉽게 책에서는 접목 가능한 분야를 ▲디자인·패션 ▲교육 ▲제조업·데이터 ▲안전 ▲건축·부동산 ▲의학 ▲미디어 ▲연구·개발(R&D) ▲관광 ▲예술 ▲가상자산 ▲법률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메타버스가 가능한 분야를 특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를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산업 분야 등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람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Q _ 메타버스의 가능성을 사람에서 찾겠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요?

여러 분야가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그릇에 각 분야의 특성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린스타트업의 핵심은 고객의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보고 이를 물어보고 계속 수정해서 곧바로 내놓고 만족한다면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밀당일 수도 있구요. 노동 구조에서 밀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조가 그런 걸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 요소에 맞는 분야를 뽑아 쓰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방을 떼어내서 새로운 메타버스 환경을 만드는 식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Q _ 책을 통해 린스타트업 개념을 적용하셨는데요. 린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요?

린스타트업이란 경영의 개념 중 하나로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고 그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제품 개선에 곧바로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서 성공률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린 제조 방식을 본뜬 것이죠. 요즘들어 기존의 스타트업들도 이런 방식을 많이 적용해왔습니다. 린스타트업의 핵심은 고객의 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만들어보고 이를 물어보고 계속 수정해서 곧바로 내놓고 만족한다면 판매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아가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일종의 밀당일 수도 있고요.



노동 구조에서 밀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노조가 그런 걸 잘하고 있지만 말이죠. 린스타트업 차원에서 경영자가 노동자를 향해 느끼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을 공감할 방안도 바로 린스타트업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를 고민해볼 수 있는 여유를 찾아야 할 것이고요.

Q _ 메타버스를 노동자에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라는 가상 현실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자는 재택을 하거나 아니면 가상의 시뮬레이션과 실제 기계가 호환되니 일을 덜 해도 되고, 그러니 자리를 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목하면 노동자에게는 희망이 없겠죠. 인공지능(AI) 시대에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다만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원활한 소통의 도구로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할 겁니다. 얼마 전 정부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프랜드’

라는 메타버스를 통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과학 관련 행사를 진행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학생 캐릭터들이 임원에게 달려와서 어깨동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가깝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였다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가 바라본 메타버스는 거침없는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노동자들과 기업 대표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 도구가 메타버스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만큼 기존의 메타버스 환경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겁니다.

Q _ 책에서 다양한 그룹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해주셨는데요.

이 중 가장 흥미롭게 보시는 메타버스가 있나요?

메타버스 플랫폼 전체보다는 다소 부분적인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 가운데 흥미롭게 바라보는 분야는 바로 가상 인간입니다. 가상 인간을 통해 일종의 부캐(부캐릭터)

로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저만의 가상 인간 샘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게임 제작하는 프로그램, 3D 모델링 프로그램, 표정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상호 연결 또는 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가상 인간이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Q _ 책 제목처럼 메타버스를 N잡과 창업에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책의 핵심이기도 한 내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 차트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스터디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실패를 줄여가는 방식

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세팅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바라봐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메타버스 역시 하나의 서비스이고 개발 영역이 있을 것이고 콘텐츠 등을 창작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무엇인가를 팔고 공론화하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메타버스 세계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일자리는 본인이 자신을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면서 찾아갈 수 있고, 아니면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거 '포켓몬고'란 게임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켓몬을 잡으러 가고 싶지만, 이동이 여의찮은 사람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대신 포켓몬을 잡아주는 아르바이트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창업 역시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주는



사람의 문제나 요구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이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불편해서 바뀌었으면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Q _ 기자로 일하시며 정부의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몸으로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정부도 메타버스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해 부처별로 성격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큰 방향에서는 메타버스를 신대륙이라는 개념으로 살펴

보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에는 메타버스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환기해준 시기라고 보고 올해가 메타버스 원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투자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후의 기저효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데 힘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 정도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 양성에도 상당한 지원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순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인재 양성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은 아마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거대 플랫폼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기는 하나, 틈새시장에서 우리만의 기술로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_ 앞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세상을 열게 될까요?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메타버스 세계가 활성화되더라도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디지털 문서를 복사해서 또 다른 문서로 저장한 뒤에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전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본을 다시 복사해서 고치는 작업이 우리 현실과 메타버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인데요. 꿈을 꾸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많은 기업이 나와서 재미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미예 작가의 <달려구트 꿈 백화점>은 꿈을 사면 다양한 주제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그런 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꿈이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누군가는 제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행복을 느끼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메타버스의 미래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더 차트를 통해 나 자신을 먼저 스터디 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 사고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앞서 말했듯 실패를 줄여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의 세팅을 한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바라봐야 일자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메타버스에 탑승해요!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나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메타버스'라는 미래.
하지만 차근차근 알아나가고 준비하면 어느새 익숙한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 'K-디지털 트레이닝'을 주목해주세요.





디지털 완전 초보라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생소한 청년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해 2021년부터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들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 7개 훈련기관, 20개 훈련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24개 기관이 118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은 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 기초 프로그래밍 과정부터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3D 디자인 등 최근 관심받고 있는 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클래스101, 팀스파르타, 패스트캠퍼스 등 우수한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훈련기관을 발굴해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300~500만 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K-디지털 트레이닝과 함께 하세요

2020년 9월 43개 훈련 공급기관을 선정하여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삼성 멀티캠퍼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혁신 IT 훈련기관이 참여해 실제 직무에서 쓰이는 코딩 기술을 배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디지털 분야의 기술 트렌드와 채용 트렌드 두 가지를 모두 이끄는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기업이 제시한 실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변화하는 채용시장의 흐름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청년 취업실태에 발맞춰 올해에는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12일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확대 운영'에 대해 발표된 바와 같이 디지털 신기술 분야 능력 개발 프로그램으로써,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의 지원 규모와 참여 가능 인원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이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 훈련과정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양한 지역의 양질의 훈련 과정을 발굴, 선정할 계획입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존의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훈련과정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대상은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마찬가지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유형	내용	주요과정	훈련분야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기존 K-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기업의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	부스트캠프 AI Tech	AI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클라우드
		우아한테크코스 웹 프론트엔드 과정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벤처기업협회 등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채용연계형(훈련생의 50%, 협·단체 회원사) 훈련과정	엘리스 SW Engineer 트랙	웹&콘텐츠 개발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 내 인력수요를 바탕으로 참여기업과 훈련기관을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훈련과정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과 개발을 한 번에! DevOps 부트캠프(부산)	클라우드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삼성의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KT의 에이블 스쿨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훈련과정	청년SW아카데미(SSAFY)	빅데이터
		AIVLE School AI개발자	
		AIVLE School DX컨설턴트	AI
		청년 AI, Bigdata 아카데미	빅데이터
		SKT FLYAI	AI
		Kakao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과정 Kakao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클라우드

K- 디지털 트레이닝 주요 훈련기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매년 약 2만 7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314개 훈련과정(145개 기관)을 순차적으로 개설,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 따라 개설 시기가 각각 다르며, 현재 운영 중인 훈련과정은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개설된 훈련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관명	훈련과정	분야
CONNECT (네이버 커넥트)	부트캠프 AI Tech	AI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테크코스 3기 백엔드 과정	클라우드
멋쟁이 사자처럼	멋쟁이사자처럼 인공지능 통합과정	AI
	멋쟁이 사자처럼 스타트업 스쿨	클라우드
모두의 연구소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	AI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과정	AI
	AI deep DIVE 코스(부산, 울산, 대구)	AI
엘리스 /*elice*/	인공지능 서비스 기획 개발 트랙	AI
그랩/프로그래머스	인공지능 데브코스	AI
	자율주행 데브코스	자율주행
	데브코스: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데브코스: 빅데이터 플랫폼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코드스테이츠	AI 부트캠프	AI
	블록체인 개발자 양성 부트캠프	핀테크
	프로덕트 매니지먼트(PM) 부트캠프	빅데이터
	그로스 마케팅 (GM) 부트캠프	빅데이터





삼성 멀티캠퍼스	온오프 연계 시활용 지능형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전문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실무	빅데이터
	딥러닝 기반 AI엔지니어링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융복합 프로젝트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AI
	융복합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IoT
	융복합 프로젝트형 클라우드(MSA)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Goorm 구름	쿠버네티스 전문가 양성 과정	클라우드
	AI기술 자연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	AI
팀스파르타	실무형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	클라우드
	AI 웹개발자 양성 과정	AI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핀테크
한양대학교	PBL 센서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빅데이터
	PBL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빅데이터
SK인포섹	클라우드 보안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클라우드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클라우드
	클라우드 AI 융합 전문가 양성과정	AI
스마트인재개발원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	빅데이터
	스마트그리드기반 IoT융합 SW전문가과정	IoT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자 과정	AI

HRD-Net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은 다른 건가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은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초급·중급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며,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도록 100%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5시간부터 88시간까지 훈련시간도 다양합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500만 원 외 별도로 5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을 수강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른 과정도 부담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료 후 K-디지털 트레이닝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체 훈련비용의 10%를 자비로 부담하는데 이는 과정 수료 시 전액 환급됩니다.

반면, K-디지털 트레이닝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7~8시간씩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강의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최초 신청할 경우,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강 기간동안 훈련장려금도 지급되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해요

K-디지털 트레이닝과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여러 교육 과정을 무료, 혹은 일부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시행 2022.2.18)’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의 자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직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의 발급 과정은 매우 간단해요. 온라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HRD-Net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HRD-Net에 로그인한 후 다양한 훈련 과정 중 내가 원하는 과정을 신청하기만 하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준비 완료입니다!





Chapter 2

내 일로



부

업

우리 함께 희망찬 내일로

자신만의 걸음으로 앞으로

남들과 같은 속도로 달려야 할 필요 없어요.

자신만의 걸음으로,

자신만의 보폭, 속도, 방향으로

나 자신에 집중하며 내일로 나아가볼까요?

스스로 만든 두 번째 기회

김현서 올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서울50플러스재단의 50+인턴십 사업을 통해 취업까지 연결된 김현서 씨는 마포구에 자리한 올림두레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정직원으로서 회계, 인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0+인턴십 사업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김현서 씨는 그 비결을 “꼰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기도 했고,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인턴십을 갈 수 있었어요. 직원을 관리형과 실무형으로 나눈다면, 저는 회사에 다니며 나름대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해 자신을 실무형으로 단련시켰습니다.

정년의 끝에서 만난 우연

오랜 시간 IT 관련회사의 재무, 회계, 인사, 급여 등 경영지원을 해온 김현서 씨는 2021년 초 정년퇴직을 앞두고 그간의 경력을 활용해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리라 마음먹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였지만 '65세까지는 당연히 회사 생활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김현서 씨는 우연히 지하철 광고판에서 50플러스재단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50플러스재단과 상담 중 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이나 기관의 인턴으로 파견되는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을 알게 됐고, 그렇게 지금의 회사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김현서 씨의 업무 능력이 필요한 기업이 여럿 있었지만, 그는 여기가 본인과 맞는 곳이란 생각에 골랐다고 합니다. 당시 기존 회사에 다니던 시기였지만, 정년 퇴임을 앞둔 김현서 씨의 인생 2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터라 가능했습니다.

“사실 인턴십을 나가시는 분들은 퇴직하고 어딘가에서 체험활동이나 준비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운이 좋기도 했고, 제가 하던 일을 그대로 살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인턴십을 갈 수 있었어요. 직원을 관리형과 실무형으로 나눈다면, 저는 회사에 다니며 나름대로 자격증 과정을 준비해 자신을 실무형으로 단련시켰습니다.”

김현서 씨의 말처럼 그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인생 2모작을 위해 전산 회계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합니다. 잘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턴십 과정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김현서 씨는 관리형이 아닌 실무형 인재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인턴십과 고용 연계

김현서 씨가 인턴으로 일하게 된 울림두레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돌봄 관계망을 통한 안심 돌봄 사회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단,

65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바람이 커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 있으면서 구인 사이트도 많이 봤죠. 다행히 지난 2021년 6월 정직원 전환이 되며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이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입니다. 지난 2007년 한담두레를 설립한 이래 2008년 두레지원센터 설립, 2019년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김현서 씨가 인턴으로 들어갔을 당시, 이곳은 협동조합이 으레 그렇듯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있진 않았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현서 씨는 회의 기초부터 웹사이트 화면 구성, 취업 규칙 등 잡혀 있지 않은 시스템을 손 보는 데 힘썼습니다.

“찾아보니 서울시에서 노무사를 파견해주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청해 미팅하기도 했어요.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갖춘다든지 회사에 맞는 서식을 만든다든지 하는 식이었죠. 없는 걸 창조할 순 없었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이나까 일을 찾아서 한 거죠.”

6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며 약 6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니다. 하지만 김현서 씨가 한 일은 월급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노동이었습니다. 차츰 동료 직원들에게도 인정받게 됐고, 결국 조합의 제의로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정직원이 되진 않았어요. 65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바람이 커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 있으면서 구인 사이트도 많이 봤죠. 다행히 지난 2021년 6월 정직원 전환이 되며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취업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 만큼 조직에 구성원으로 몸담고 있는 것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끈대가 되지 않으려는 노력

김현서 씨는 프로의식을 가진 '탈 끈대'입니다. 신입사원도 아니면서 주어진 일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자로서 회사에 도움을 주되, 본인이 아는 것이 맞다는 소위 끈대식 마인드도 지양합니다.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본인의 부족한 점을 빠르게 판단하고 인정할 줄 압니다. 직원들에게 부족한 점을 먼저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생각하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구성원에 대한 배려입니다.

“IT기업에 있다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직무 숙지와 관계기관인 서울시, 건강보험공단과의 소통 등이 처음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생경했던 업무가 손에 잡힌 데에는 저의 노력도 있었지만,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조합에는 이사장님, 사회복지사, 코디네이터 그리고 저 이렇게 네 명의 사무국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이 없을 겁니다.”

서툴지만 꾸준히 김현서 씨는 본인의 과업을 다했습니다. 급여 시스템을 엑셀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밤을 새우기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컴퓨터활용능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 2모작을 위해 뛰어난 현장에서 삶의 본질을 접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만나 도움을 주다 보니 선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가치관을 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서 씨는 인생 3모작을 65세 이후로 잡고 지금부터 잘 대비해 나가려 합니다. 인생 3모작은 대학교에 입학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김현서 씨는 이 모든 목표가 50플러스 재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심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해”라고 하잖아요. 전 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번도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보거나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사회에 나오면 정말 막막해요. 50플러스재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적극적으로 상담 받아보세요. 많은 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감춰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Tip.

사회적경제(SE) 펠로우십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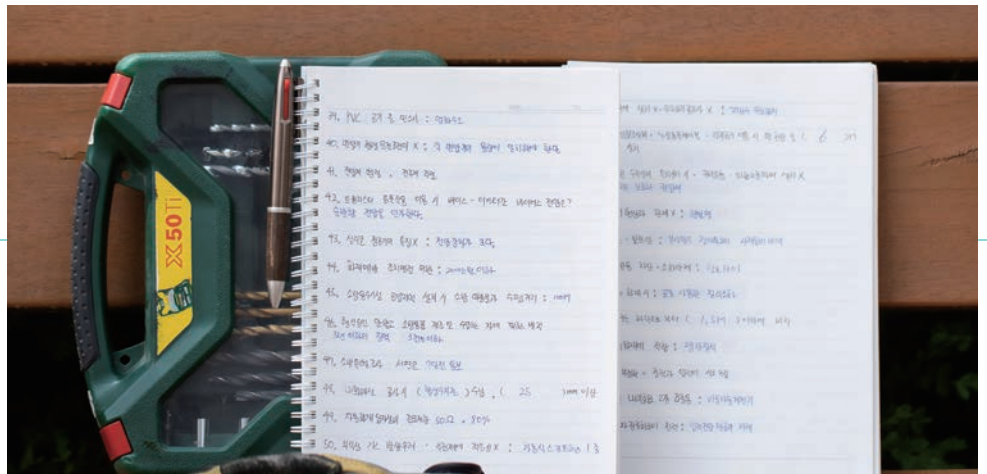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동료, 지지자를 뜻하는 펠로우(Fellow)를 합친 말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이어가는 앙코르 커리어를 뜻합니다. 50+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의 사회적 연대 확산과 경제적 가치 증진,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푸른 미래 가득한 청년의 꿈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자 김민성 씨



풍요롭지 못한 가정 환경에 머물러 멈춰 있지 않고, 언제나 꿈과 희망 그리고 긍정이란 단어를 좇아간 김민성 씨는 스물여섯이라는 쟁한 나이보다 훨씬 말갈게 웃습니다. 그가 순수한 웃음과 긍정적인 미래를 꾸려갈 수 있었던 데에는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힘든 유년기를 이겨낸 긍정의 힘

김민성 씨는 어머니가 없는 한부모가정에서 몸이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동생까지 보살펴야 했던 민성 씨는 유년기에서 소년기로 넘어가던 시절, 밤낮으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정을 지킬 수 있으면서 꿈을 꿀 방법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찾았습니다. 학교 진로상담도 여럿차례. 결국 적성에 맞는 공업고등학교 기계과에 진학해 설비 엔지니어라는 구체적인 직업을 목표를 잡게 됩니다.

진학 후에도 민성 씨는 설비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열심히 성적관리를 하고 설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뛰어난 취업 시장은 높은 벽을 실감케 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가 대부분

경력자를 선호했기 때문이죠.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를 대신해 민성 씨를 키워 주신 할머니가 치매로 쓰러져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집 근처로만 취업해야 하는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누군가는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가정환경이었지만, 민성 씨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속엔 주위의 도움을 비롯해 그 시절 자주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잘 견디며 사는 것을 TV로 보며 힘을 냈어요. 타인의 고통을 저와 비교한 게 아니라, 그들이 힘을 내서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할머니 병간호가 겹치며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일 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같이 힘든 청년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직업훈련도 다양한 학원과 연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죠.”

한 번의 실패와 철저한 준비

백방으로 노력하던 민성 씨에게 동사무소의 직업 상담사가 연락해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겁니다. 과거 “사기업은 경력은 없어 취업하기 어려우니, 신입을 뽑는 일자리가 나오면 꼭 알려주세요”라며 직업 상담사에게 말을 해둔 민성 씨를 기억한 겁니다.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에서 기계 설비와 관련된 직무를 뽑는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민성 씨는 블라인드 채용 공고 방식을 처음으로 접하고 깜깜한 터널에서 빛을 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친금과 같은 기회였죠. 경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 면접만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집 근처라 할머니 병간호도 걱정 없었고 그동안 꿈꿔온 기계 설비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여기 아니면 안될 것 같았죠. 그런데 지원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필수 국가기술 자격증인 ‘에너지관리기능사’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민성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곳에서 매년 기계 직무를 채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민성 씨는 ‘내년에는 꼭 이곳에 취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실기시험이 작업형이라 학원까지 다녀야 했죠. 민성 씨는 오래전 대학교에서 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학원이든 최소 50만 원은 필요했어요. 취직도 못하고 집안 상황도 좋지 않은 저에게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저 같은 저같이 힘든 청년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직업훈련도 다양한 학원과 연계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성공한 취업

학원은 열정 가득한 선생님들이 민성 씨를 정성껏 교육해주었습니다. 배관 절삭부터 가스용접, 최종 조립까지 차근차근 알려주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1:1로 따로 수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민성 씨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안타깝게 넣지 못한 기업이 2021년에 다시 채용 공고가 뜨길 기다리면서 말이지. 또 설비직 무에 도움이 될 만한 직업훈련인 공조냉동을 다시 한번 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훈련이 끝나갈 때쯤 기다리고 기다리던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최종면접에서 합격합니다. 마침내 2022년 봄, 민성 씨는 안양 도시공사 종합운동장사업부의 주임으로서 설비 엔지니어로서 꿈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채용공고가 뜨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기계 설비 업무나 보조 업무, 유지 관리 쪽 민간기업에 취업을 시도하려 했어요.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죠. 그럴 때마다 가족, 친구들, 여자친구가 큰 버팀목이 돼 주었어요. 특히 여자친구는 오랜 기간 제 옆에서 지켜주며 저를 좀 더 긍정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힘든 문턱에서 좌절하려 할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이제 취업했으니 값어치 날만 남았어요.”

민성 씨는 취업에 성공하게 된 첫 번째 비결을 망설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꼽습니다. 더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에 놓은 구직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학원비 걱정부터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무척 낮은 비용으로 학원에 다니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무척 수준이 높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퇴근 후 직업훈련을 받아 기계 설비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도 취득하고 업무에 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기계 설비전문가로 성장할 겁니다.”

Ti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비롯해 HRD-Net을 통해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직업훈련을 통해 배운 기술과 지식이 면접에서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그 직무에 대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점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왜 이런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나의 대명사로 성장하기까지

아이버스터



아이버스터는 '세상에 놀라거나, 세상을 놀라게 하거나' 라는 생각으로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의 새로운 생각, 재미있는 생각, 불편함에 대한 생각들을 현실로 풀어내죠. 아이버스터는 직원들이 생각을 마음껏 펼쳐 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버스터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 되었습니다.



* 본 촬영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모바일 액세서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 보호와 디자인을 합성한 개념의 프로자인은 당시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립톡의 모든 것

스마트폰 핸드 그립 ‘그립톡’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과거 링 형태이던 핸드 그립의 트렌드가 서서히 손가락 사이에 끼울 수 있는 그립톡으로 바뀐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 최근 그립톡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들은 본인의 얼굴을 넣기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 얼굴을, 아이들은 귀여운 캐릭터 모양으로 스마트폰을 꾸미기도 하죠. 최근엔 한 지자체가 ‘외국인들을 위한 범죄예방 가이드’ QR코드 활용방안으로 그립톡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대명사로 알고 있는 그립톡이 사실 한 회사의 브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아이버스터입니다. 아이버스터는 2014년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화면으로 씌운 획기적인 제품 프로자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 액세서리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모바일 액세서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 보호와 디자인을 합성한 개념의 프로자인은 당시 시장에 없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스마트폰 종류에 맞춰 제품을 만들기란 경제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동훈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아찔하게 웃습니다.

“기종이 너무 많아서 비용적으로 따라가는 게 힘들었어요. ‘모든 휴대폰 기기에 쓸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것이 그립톡이었어요. 2016년이었죠. 프로자인으로 익힌 스마트기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그립감을 더한 것이었죠. 아이템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링을 오랫동안 낀 분들이 그립톡으로 습관을 바꾸게 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때 배운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게 됐고, 결과가 좋았죠.



MZ세대 공략법

고민 끝에 남동훈 대표가 선택한 타깃은 지금의 MZ세대였습니다. 캐릭터를 접목하기 시작했죠. 다양한 아트 작품을 적용하며 좀 더 편안하면서도 사용 시 디자인이 보여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치대로 브랜딩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카카오톡 그룹톡은 MZ세대들에게 지금의 그룹톡을 알리게 된 중요한 계기였죠.

“첫 출시 이후 그 누구도 저희와 협업할 생각이 없더군요.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젊은 층을 공략하려면 다양한 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카카오톡에 가

서 매달리다시피 했어요. 사실 저는 특전사에서 5년간 근무하고 전역 후 보험회사에서 지점장을 했어요. 그때도 우선 부딪쳐가며 몸을 움직였어요. 무작정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방송에도 몇 번 나왔고요. 그때 배운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카카오톡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협업하게 됐고, 결과가 좋았죠.”

남동훈 대표가 우선 몸으로 부딪치고 일을 벌이는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그와 창업부터 함께한 이종수 부대표는 분석과 데이터를 근거로 움직이는 차분한 성격입니다. 정반대인 두 사람은 보험사 시절부터 만나



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창업했을 때 여러 회사에서 좋다고 하는 복지는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힘들어서 빠는 한이 있어도 일단 좋다는 건 다 하자는 생각이었죠. 직원들이 원하는 것도 가능한 한 해줘요. 사실 물어보면 딱히 무리한 요구도 없어요. 좀 더 좋은 커피 머신을 쓰고 싶다, 맛있는 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싶다는 등이죠.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직원들은 아이버스터에 입사하면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격증을 따면 축하금을 지급하고 도서를 구입해 주고 먹고 싶다는 간식을 무한 제공합니다. 생일에는 생일축하금과 조기퇴근 혜택이 있습니다.

“원래 점심 식대가 없었어요. 저희와 함께 식사하고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혼자 밥을 먹고 싶거나 특별히 그날 따라 다른 것이 먹고 싶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대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첫날 모든 직원이 도시락을 싸 오더라고요. 그러길래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버스터의 두 임원은 새로 입사한 직원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있는 시간 중 대부분은 회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회사에서 힘들고 짜증 나게 일한다면 얼마

나 불행할까요. 회사에 출근해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들고 짜증 나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아이버스터는 돕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공유하는 파트너입니다. 너무도 다른 서로의 성격을 잘 알다 보니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깁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죠. 젊고 잘 맞는 두 임원 덕분에 직원들은 퇴사율 제로에 가까운 아이버스터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싶은 회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두 임원의 신념입니다. 간섭하고 지켜보고 지시하기보다는, 가능한 선에서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일할 수 있

TIP

체력 단련비 지원

취미 활동비 지원

매월 첫째 주 금요일 패밀리데이

장기근속 포상

자녀 학자금 지원

스포츠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스포잇

스포츠, 그중에서도 축구로 취약계층과 소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거창함까진 아니지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스포잇은 참여와 협력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직접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렵풋이나마 사업을 구상한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곳의 방식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회가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은퇴한 프로 축구 선수가 만든 사회적기업

한국 최초로 골키퍼로서 유럽 프로 리그에 진출한 권정혁 대표는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지난 2019년 스포잇을 창업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선수 생활을 하던 시절, 그곳 선수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실업 기간이 길고 불안한 국내 축구 선수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정혁 대표는 언젠가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면서도, 후배들 역시 느낄 은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경쟁만 알던 30대 초반에 만난 핀란드는 권정혁 대표에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단순히 복지국가로만 알고 왔지만, 생활하며 협력의 의미를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연봉과 경쟁이 아닌 협력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권정혁 대표는 이 시절이 인생의 가치관을 크게 바꿔 놓았다고 회상합니다. “어렵풋이나마 사업을 구상한 것이 이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곳의 방식이 좋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회가 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했

어요. 스포잇을 시작할 때도 방향을 그쪽으로 잡게 됐고, 그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오게 됐죠.”

대부분의 선수는 프로 축구 선수가 되더라도 1~2년 안에 관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퇴하거나 은퇴 후에 할 것 없이 불안함에 떠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 권정혁 대표가 시작한 스포잇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기적인 일 자리를 주지는 못해도 스포츠를 배우려는 아이들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스포잇이 추구하는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취약계층 아이들과 은퇴 선수를 잇는 플랫폼 구축

2년 남짓 지난 지금, 스포잇은 은퇴 선수와 유소년 축구 꿈나무 선수 혹은 동호인이 만나 가르치고 배우는 매칭 플랫폼 ‘모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영상 촬영과 아카이브를 활용해 선수들의 이적 혹은 학생 선수들이 진학할 때 필요한 하이라이트 동영상 촬영, 편집해 판매하기도 하죠. 직접 풋살장을 마련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축구 교육을 제공하는 드림 스타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축구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취업 준비생을 위한 스포츠 직업 토크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프로스포츠협회와는 여러 종목의 은퇴 선수를 위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준비와 미디어 크리에이터 육성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죠.

이 외에도 K리그 드림어시스트, KFA 레전드 클리닉, KFA 레전드 플레이그라운드 등 다양한 축구 관련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잇은 은퇴 선수와 유소년선수, 여자축구 등 스포츠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보람을 가지면 일을 잘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어져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축구가 돈 없는 사람들의 운동이었다면

요즘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이 꽤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맹의 예산으로 사업 운영을 돕고 있어요. 아이들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의 멘토를 만나 관심받으며 운동하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실력도 늘어요. 축구부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겨 너무 고맙다고요. 그럴 때마다 행복하고 스포잇을 만들기 잘했단 생각이 들죠.”

유럽에서 배워 온 ‘협력’의 진짜 의미
사회적기업이긴 하지만 권정혁 대표의 요즘

아이들이 프로 축구 선수 출신의 멘토를 만나 관심받으며 운동하면 적극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실력도 늘어요. 축구부 선생님께서부터 직접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력이 많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겨 너무 고맙다고요.





고민은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들어 회사를 성장시킬까’ 하는 겁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부담도 크니까요. 최근엔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공단, 프로스포츠협회 등에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영상이나 블로그 운영 등을 통해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포트폴리오를 쌓아오며 지표를 만들어낸 덕분에 정부 지원 사업까지 활로를 넓히게 됐습니다.

“창업자로서 가장 관심사는 생존이죠.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 해도 생존이 안되면 가치창출은 불가능하니까요. 월급 주는 날엔 너무 흥분해요. 매일 치열하게 일하고 월급날이 되면 내 일을 했구나 싶거든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직원

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입니다.”

권정혁 대표는 스포잇을 통해 핀란드에서 보고 겪은 ‘협력’을 실천하려 합니다. 어느 분야든 그렇겠지만, 스포츠 분야에도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스포잇은 이것을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협력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의 꿈을 가지는 거잖아요. 저만의 꿈이 아닌 직원들이 동일한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려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처음에 사회적기업이라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사실 저희는 서로의 월급 빼곤 모두 법인 계좌를 볼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느끼다 보니 이제는 자신의 능력치 이상으로 스스로 일을 찾아 하고 있어요. 고마울 뿐이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포잇은 기반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견고히 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이 불평등을 느끼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모든 사람에게 당도록, 공 하나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스포잇은 협력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MOEL News

1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출된 2021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현황(국가승인통계 제118030호)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3.10%로 전년 대비 0.02%p 증가했으며,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늘어났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은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중 중증 장애인 비중(30.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2.97%로 전년과 비교하여 0.03%p 하락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3.92%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이 3.68%로 뒤를 잇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작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교육청의 공무원 고용률은 1.94%로 전년 대비 0.03%p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5.83%로 전년 대비 0.29%p 상승했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중증 장애인 비중이 45.5%, 여성 장애인 비중이 40.9%로 네 부문 중 가장 높아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별 고용격차 완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4%)의 장애인 고용률은 3.78%로 전년보다 0.26%p 상승하여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였고, 민간기업(의무고용률 3.1%)의 장애인 고용률은 2.89%로 전년 대비

<'21년 말 장애인 고용현황>

구분	사업체수	상시 근로자수	고용 의무인원	장애인 고용 인원 ²	중증 장애인 (비율,%)	여성 장애인 (비율,%)	고용률 (%)	'20년말 대비	증감률 (%p)	의무 고용률 (%)	
								증감 인원 (명)			
계	30,478	8,674,826	259,072	268,663	66,304 (31.9)	55,057 (26.5)	3.10	7,837	▲0.02	-	
정부 부문	공무원	317	931,368	31,829	27,618	3,950 (16.7)	5,986 (25.3)	2.97	348	▼0.03	3.4
	비공무원	305	401,933	13,514	23,418	7,711 (45.5)	6,929 (40.9)	5.83	2,188	▲0.29	3.4
공공기관	764	586,801	19,562	22,179	3,708 (20.0)	4,588 (24.8)	3.78	2,164	▲0.26	3.4	
민간기업	29,092	6,754,724	194,167	195,448	50,935 (34.3)	37,554 (25.3)	2.89	3,137	▼0.02	3.1	

0.02%p 하락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장애인 근로자가 1,844명 늘어난 결과 장애인 고용률 3.47%를 달성하여, 3%에도 못 미쳤던 작년 고용률 (2.62%) 대비 큰 폭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가 이어졌던 민간기업의 경우, 규모별·업종별로 회복 속도가 다른 경향으로 인해 작년보다 상시 근로자 수는 15만 489명 늘었으나 장애인 근로자는 3,137명 늘었는데 그쳐 비장애인 고용 대비 장애인 고용의 회복이 다소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던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전 부문에서 중증·여성 장애인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22년도부터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기조에 따라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30,478곳 -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 신고
2. 장애인 고용인원은 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한 값

2

강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키워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강소기업」 1만 6655개소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4만 7309개소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공개 체불 기업,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등 7가지 결격사유¹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정했습니다.

<강소기업 결격사유 기준>

- ①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따른 명단 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② 3년 이내 2회 연속 동종 업종·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③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 기업, ④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599개소(39.6%), 21~50인 이하 기업이 6,354개소(38.2%) 순으로 많고, 200인 초과 기업은 508개소(3.1%)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 381개소(62.3%), 도·소매업 2,168개소(13.0%), 정보통신업 1,745개소(10.5%)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 6,400개소(38.4%), 서울 3,194개소(19.2%) 등 수도권에 57.6%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22년 선정된 강소기업 중 3년('19~'21년) 연속으로 선정된 기업이 6,544개소, 2년 연속('20~'21년) 선정된 기업이 9,296개소나 되고, 특히,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기업, 대전시의 매출의탑, 경남형청년친화기업, 월드클래스플러스가 새롭게 선정됐습니다.

2022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워크넷을 통해 기업정보,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고, 네이버와 연계하여 기업 홍보²를 지원하고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정기 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및 각종 선정 시 우대 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구직등록 후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에서 구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입사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하여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 총 1,214개소의 기업을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할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기업정보를 잘 알지 못해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청년친화적 매체를 통한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1. 2012년부터 선정했으며 2020년 1만 5658개소, 2021년 1만 5962개소 선정

2. 네이버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기업정보에 강소기업 인증 현황 제공



강소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취업 지원	· 채용지원서비스 제공 (테마별 채용관)	· 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테마별 채용관을 통해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www.work.go.kr)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홍보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 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청년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jobyoung/smallGiants)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네이버를 통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한 기업 홍보	·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인증현황 제공 · 청년워크넷-강소기업 선정기업에서 기업정보 제공	네이버, 청년워크넷
재정 금융 우대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우대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신용보증기금
	·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 (최대 10억원, 연리 1.5%)	·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 KB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 NH투자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현대차증권 퇴직연금 가입시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기업 운용관리수수료 할인 (구간별로 10% 추가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 강소기업에 한하여 운용 및 자산관리수수료 50% 할인	KB증권 (www.kbsec.com) NH투자증권 (www.nhqv.com) 현대차증권 (www.hmsec.com)
선정 선발 우대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일학습병행 블로그 (https://blog.naver.com/run-learn)
	· 중소기업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 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체험 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www.work.go.kr/exper)i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지원선정 시 우대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 (www.ei.go.kr)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클린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 시 가중치 부여 ·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 (https://clean.kosha.or.kr)
	· 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세무 조사 제외 우대	· 정기세무조사 제외사업장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 고용비용 계산시 강소기업은 가중치(2배)부여	·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국세청 누리집(지원내용) www.nts.go.kr 국세청 홈택스(신청) www.hometax.go.kr

3

공정한 채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자율개선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은 새 정부의 네 가지 국정 운영 원칙(국익, 실용, 공정, 상식) 중 하나로, 특히 청년이 사회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¹로 선정했고, 신임 이정식 장관도 지난 5월 11일 취임식에서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22년 상반기 집중 점검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

- 1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속도감 있게 추진
- 2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으로 기업의 자발적 노력 유도
- 3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600개 이상 사업장 점검 ('21년 하반기 대비 30.7% ↑)
- 4 점검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병행하고 점검 결과 피드백을 통해 노사의 공정채용 확산 노력 뒷받침



①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점검을 추진합니다. 이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²를 바로잡고,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6.~5.27.) 자율개선 지도<1,800개 사업장> → (5.30.~6.10.) 집중 신고기간 운영 → (6.13.~6.30.) 현장 지도·점검<600개 사업장>

* 일정과 규모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② 현장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개선을 장려합니다. 건전한 채용 질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이전에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이에 약 1,8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를 발송하고, 카드뉴스 게재, 안내문 제공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노사 간담회, 「채용절차법」 설명회 등을 통해 공정한 채용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③ 공정 채용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0% 늘어난 6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현장 점검 시 과태료, 시정명령 사항뿐만 아니라, 법상 권고사항이지만 구직자의 체감도가 높은 사항(예> 채용 일정 및 채용 여부 고지)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 점검 기간에도 120개³의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채용절차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범부처 합동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④ 현장 점검이 공정 채용문화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 위반 여부 점검을 넘어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법 개정 및 정책 수립 시 참고하고, 공정채용 문화의 민간 자율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⁵도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주요 위반 유형, 우수·미흡 사례, 시사점 등을 현장·중앙에서 노사와 공유하여 노사의 자율 개선과 공정 채용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시작인 ‘채용에서의 공정성 확립’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불공정채용 관행이 있다면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점검을 하겠다”며

MOEL News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채용법」으로의 개정과 공정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노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온·오프라인 신고센터⁶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2. 주요 점검 항목 : ▲출신지역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강요 등 금지,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
 3. 현장 점검 사업장 수 : ('21년 하반기) 459개 → 600개 이상, 30.7% ↑
 4. 건설현장 120개소는 전체 점검 사업장(600개)의 20%를 차지하며, '21.하반기 건설현장 점검 규모(71개소) 대비 69.0% 증가
 5. 정부 합동 “건설현장 신고센터” : 044-201-4112 / con112@korea.kr
 6.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채용절차법 위반 신고
(오프라인)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전화 등을 통해 신고



4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12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의 규모는 8,611억 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111억 원, 70만 명)

(지원대상)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 1차 추경 집행 잔액<1,000억원>을 활용하여 10만 명 추가 지원 예정

(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

(지원절차)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10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 원 지급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1,500억 원, 7.5만 명)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법인) 택시기사

(지원규모) 1인당 200만 원 지급



MOEL News

5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¹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





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



Chapter 3



날마다



레벨업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로

트렌드에 민감하다면

트렌드를 알아야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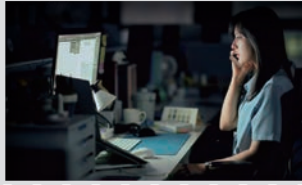
남들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싶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실속만점, 꿀정보를 소개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흥미로운 노동법 이야기

햇바퀴 같이 반복되는 권태로운 삶을 사는 세 남매의 행복 소생기를 다룬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견딜 수 없이 촌스럽지만 또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가족, 친구의 이야기가 웬지 모를 공감을 불러일으켰죠. 드라마 속 흥미로운 노동법을 알아볼까요?



“요즘도 그런 바지를 입고 다니나?” 해방될 대상은 모르는 법



대형 카드회사 디자인팀의 계약직으로 일하는 셋째 염미정은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을 견디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과업을 해가면 노골적으로 “쫓” 소리를 내며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죠. “디자인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급기야는 염미정의 옷을 지적하며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 언제 샀냐고 물어봐야 하나?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간만 이라. 보기에도 답답하지 않아?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없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염미정은 사내 동호회 ‘해방클럽’을 두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는 클럽이냐?”고 비아냥거리는 과장에게 “지겨운 인간들한테서요”라며 묵직한 한 방을 날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견디기 힘든 대우를 받나요?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해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또 또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심사 앞두고 사내 스캔들 누명?! “떨끄러우니까 너 나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염미정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업무 능력으로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도 희망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염미정이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 그를 미워하던 팀장이 사내 불륜 상대의 이름을 ‘염미정’으로 등록해 놓은 것이 드러납니다. 팀장이 염미정을 미워한다는 걸 아는 회사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죠. 불륜 상대를 진작 알고 있던 염미정은 그녀에게 치욕적인 말을 듣고 서로 폭행하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불륜녀과 팀장은 불륜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결국 염미정은 “정규직 심사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다”며 심사에서 탈락하고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비정규직으로 불리한 차별을 당했나요?

사업장에서 필요에 의해 시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당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5월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했고 그 결과 198개 사업장의 개선이행은 이 끝났습니다.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경남,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용차별에 대해 문의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근 시간은 수수께끼? 카페에서 야근하면 주 52시간이 넘나요?



드라마 초반, 세 남매의 엄마는 염미정에게 구 씨에게 전해줄 음식을 쥐여주며 “아빠는 아침 7시부터 일할 건데, 구 씨는 9시까지 와도 된다 그래. 그냥 9시까지 오라고 하지 말고”라는 아리송한 말로 출근 시간을 말합니다. 눈치 빠른 구 씨는 7시에 출근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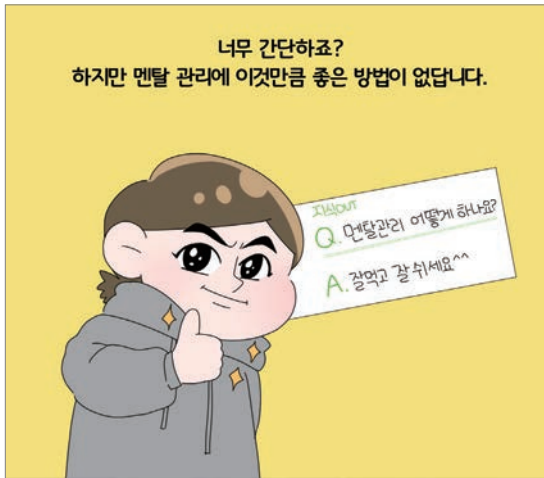
한편, 팀장에게 가져간 디자인 시안을 수정해야 하는 염미정은 야근을 자주 하는데요. 견디기 힘든 마음이 들 때면 업무를 싸 들고 근처 카페로 가죠.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카페에서 외로움을 참으며 행복한 상상을 하는 염미정의 야근은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 52시간씩 일 하고 있나요?

근로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을 말합니다.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제 구속시간을 의미하죠.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는 반면 사기 진작이나 친목을 강화하기 위한 회식은 인정되지 않죠. 지금은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범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해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상 현실 기술, 어디까지 왔나?

최근 몇 년 사이 가상 현실 기술은 실제 현실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VR(가상 현실)뿐 아니라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 XR(확장 현실), SR(대체 현실) 등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는데, 비슷하면서도 각기 다른 가상 현실 관련 개념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XR (확장 현실)

ER 혹은 XR이라고도 불리는 '확장 현실'은 'Extended Reality'의 약자입니다. VR(가상 현실)과 AR(증강 현실), MR(혼합 현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또한 XR은 MR이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XR에서는 MR보다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결합 및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현실 공간에 배치된 가상의 물체를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가상 공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격 회의 시 디지털 공간에 자료를 띄워 공유하거나 의료, 제조, 군사 산업 등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을 훈련할 때 XR 기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SR (대체 현실)

SR은 'Substitutional Reality'의 약자로 '대체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인지 과정을 왜곡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을 새롭게 구현하거나 현재와 과거의 영상을 혼합해 실제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인지 뇌과학이 융합된 기술입니다. 체험자는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혼동과 착각을 경험하게 되죠. VR, AR, MR과 달리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에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SR의 장점입니다. SR의 완벽한 구현은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향후 심리 치료와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VR(가상 현실)

VR은 'Virtual Reality'의 약자로, 실제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인 '가상 현실'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를 현실로부터 완전히 차단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몰입감을 주는 것이 핵심이죠. 사용자는 머리에 착용하는 VR 디바이스 HMD(Head Mounted Display)를 통해 가상 현실에 접속해 현실감을 극대화한 시청각적 콘텐츠에 몰입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무게감이 있는 헤드셋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안경에 가까운 작고 가벼운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VR 기술은 IT, 의료, 제조, 자동차, 영화, 음악, 쇼핑, 게임, 건축, 관광,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과 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기술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R(증강 현실)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증강 현실'이라고 합니다. VR과 달리 위치와 지리 정보 등 주변 환경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주는 것으로,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가 중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포켓몬 고' 게임이 증강 현실을 잘 구현한 대표적인 사례죠. AR은 현실과 가상 현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증강 현실을 적용하면 실제 도로 장면에 주행 정보를 추가해 보여주고, 인테리어 시 가구를 사기 전 미리 공간에 배치해볼 수 있습니다. AR 역시 디바이스가 필요하지만 스마트폰이나 AR 글라스, 손목 밴드 등 훨씬 간편한 기기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MR(혼합 현실)

MR은 'Mixed Reality'의 약자로 '혼합 현실'을 말하는데, VR과 AR의 장점을 합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R과 작동 방식이 비슷하지만, 현실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보여주는 AR과 달리 MR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배치해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오브젝트를 인식해 그 주변에 가상의 공간을 구성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융합해 더 진화된 가상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죠. VR과 AR은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MR은 시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MR 기술을 구현 가능한 플랫폼이 많지 않지만 교육, 의료, 스포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직장동료과의 궁합은? 팀장님 MBTI는 뭘까? 직장인의 MBTI

알파벳 8개로 성격을 나타낸다는 MBTI. 한 번도 MBTI 테스트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질문 몇 개로 장신의 성향을 정해주니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MBTI로 우리의 직장생활을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MBTI는 ISTJ, 소득이 높은 유형은 ENTJ, 가장 낮은 유형은 INFP라는 조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회사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 많은지, 내 동료, 팀장님의 MBTI는 무엇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꽤 흥미로울 거예요. 단, 재미로만 보세요! 과몰입은 NO!



E

외향
(Extraversion)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 점열적, 활동적이다

S

감각
(Sensing)

오감에 의존해 실제의 경험을 중심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을 처리한다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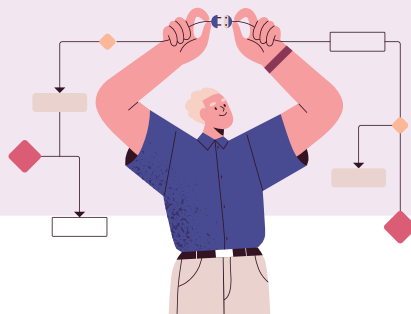
사고
(Thinking)

진실과 사실에 주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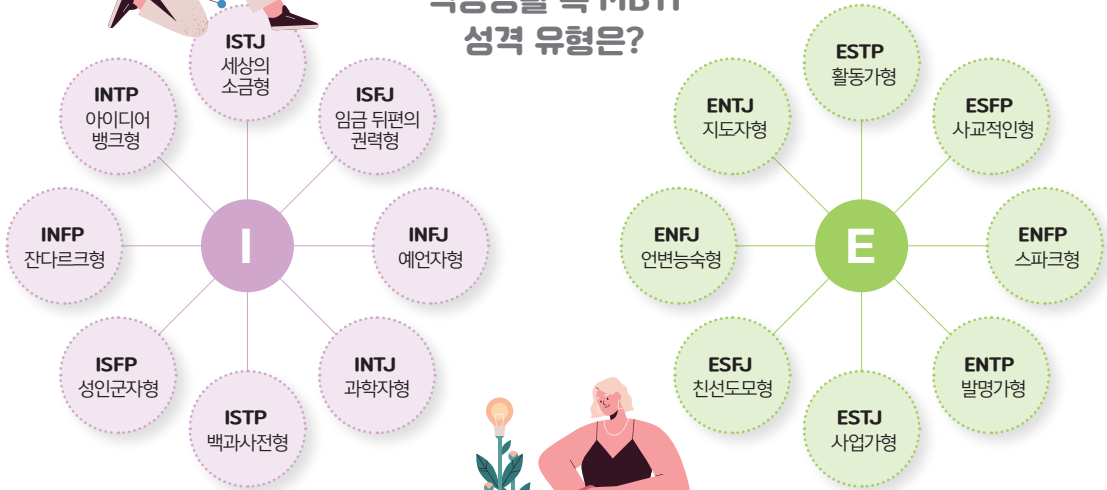
J

판단
(Judging)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



* TIP
직장생활 속 MBTI 성격 유형은?



<p>I</p> <p>내향 [Introversion]</p> <p>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게 이해한 다음 경험한다</p>	<p>N</p> <p>직관 [Intuition]</p> <p>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을 처리한다</p>	<p>F</p> <p>감정 [Feeling]</p> <p>사람과 관계에 주로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p>	<p>P</p> <p>인식 [Perceiving]</p> <p>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인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p>
---	--	--	--



TIP MBTI 유형별 회사 내 위치

- 타고난 리더십, 하지만 끈대 : ENTJ / ESTJ / INTJ
- 존경받는 상사 : ISFJ / ISTJ
- 이달의 우수직원 스타일 : INFJ / ENFJ / ESFJ

- 직장 생활은 가능하고 길~게 추구 : ISTP
- 열심히 하지만 욕 먹는 타입 : ENFP / INFP / ISFP
- 누가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양체 : ENTP / INTP
- 조직생활에 안 맞음 : ESTP / ESFP

6월 1일 의병의 날, 6월 6일 현충일,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 6월 25일 한국전쟁, 6월 29일 제2연평해전까지. 6월은 기억해야 할 날들로 가득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콘텐츠들을 소개합니다.

기억하는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쟁 테마 문화 큐레이션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
영화 <연평해전>

전국이 붉은 함성으로 가득 찼던 2002년 한국과 터키의 3, 4 위전 경기가 열리던 날, 서해 한 가운데서는 커다란 포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아선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향해 기습 공격을 해온 것이죠. 영화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벌어졌던 남북 간 해상 교전, 제2연평해전의 실화를 담았습니다. 무려 6명의 해군이 목숨을 잃었지만 당시 월드컵 열기에 묻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비극적인 사건. 영화는 그날의 영웅들을 재조명하고자 했습니다.



터키 병사가 품은 한국 전쟁고아
영화 <아일라>

영화 <아일라>는 한국전쟁에 파병됐던 터키 병사와 전쟁통에 고아가 된 5살 한국 소녀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군인 솔레이만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어린 소녀를 부대로 데려와 '달'이란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딸처럼 돌보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정든 아일라를 몰래 터키로 데려가려 했으나 결국 발각돼 홀로 떠나게 되죠. 이후 둘은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소식조차 알지 못하다 무려 60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참전국의 시선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본 영화 <아일라>는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학도병들의 전투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6.25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던 인천상륙작전.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성동격서(聲東擊西)'를 잘 보여준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동'의 사건은 무엇이였을까요? 단 2주의 기초훈련만을 받은 학도병 772명이 동원된 '장사리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들은 쏟아지는 총알 속에서 인민군의 보급로 차단에 성공하지만 결국 이들 중 소수 인원만이 살아남습니다.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은 인천상륙작전과 마찬가지로 기억되어야 할 장사리 전투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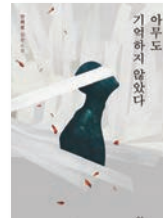
기록되지 못한 마지막 전쟁
영화 <고지전>

1951년, 2년 2개월이라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휴전회담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전쟁을 멈춘 이때에도 최전방 '고지'에서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한국전쟁의 총 사상자 4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은 바로 이 기간에 중부전선의 고지쟁탈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림된 공간에서 싸우는 이유조차 잊은 채 마지막까지 싸우다 죽어간 그들. 영화 <고지전>은 '한국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전쟁의 마지막 전쟁과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고통의 시대를 나아가다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다룬 <나무>이 박완서의 등단작이라면,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그가 생애 마지막까지 직접 다듬고 매만진 유작입니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작가의 20대, 한국전쟁의 한가운데부터 시작합니다. 의용군으로 갔던 오빠의 부상과 죽음, 생존을 위해 빈집을 털어야 할 만큼 남겨진 가족들이 겪은 뼈아픈 가난, PX에서 일하다 만난 남편과의 결혼까지. 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한국전쟁 시기 작가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특유의 풍요롭고 능란한 언어로 풀어냅니다.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남자
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안재성의 장편소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북한 노동당 청년간부로 한국전쟁에 참가했다가 포로로 잡혀 10년간의 수용소, 감옥 생활을 겪은 실존 인물 정찬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쟁의 참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금주성 일대의 이름난 수재였고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북한의 엘리트였으나 전쟁에 참여한 그는 끔찍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가 포착한 전쟁의 단면은 동족 간의 전쟁을 강요당한 사람들 간의 무자비한 폭력과 갈등이었죠. 작가는 소설을 통해 불행했던 우리 역사의 외면된 진실을 복원하고자 했습니다.



생존을 향한 끝없는 갈망
소설 <태양의 그늘>

총 3편으로 구성된 박종희의 장편소설 <태양의 그늘>은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우리 민족이 필연적으로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한 가족의 일대기를 통해 그리고 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던 남평우와 윤채봉이 부부의 연을 맺은 후 격변의 시대에 내던져지며 겪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는 가족 간의 유대감, 인간의 실존적 가치, 생존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담아냈으며, '되찾은 땅에서 빼앗긴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비극을 생생하게 풀어냈습니다.



이념 대립이 만들어낸 비극
소설 <순교자>

소설 <순교자>는 한국계 최초로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재미작가 김은국의 대표작입니다. 남북의 이념 대립으로 인해 열두 명의 순교자가 발생했던 목사 집단 처형 사건에 대한 진실을 미스터리 형식으로 추적해 갑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인간이 신앙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출간 즉시 미국 언론과 문단의 관심을 끌며 미국 전역에서 20주 연속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세계 10여 개 언어로 번역, 출간됐습니다. 또한 1965년 영화화 되었고 연극으로도 여러 차례 각색된 바 있습니다.



전쟁이 앓아간 우리 형
동화 <우리 형>

열두 살 터울의 형은 아우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알려주고, 못 하는 것이 없으며, 아우가 위험에 처하면 쏠살같이 달려와 구해주는 형이었죠. 그렇게 '큰 산'과 같던 형이 입대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소식이 끊어진 형을 그리워할 새도 없이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참혹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림 동화 <우리 형>은 '보통 사람들'이 겪은 전쟁의 두려움과 상처,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해 어린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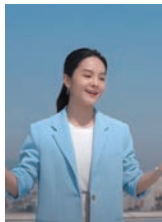
아이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
동화 <그해 유월은>

어린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1950년 6월은 어땠을까요? 평화롭던 주인공 종희네 가족은 어느 날 시작된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아빠와 오빠는 전쟁터에 끌려가고, 할머니와 동생은 피난길에 폭격을 맞아 세상을 떠났죠. 엄마의 생사도 알 수 없었지만 종희는 곳곳하게 외가를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모인 고아원까지 가게 되지만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놓지 않습니다. 동화 <그해 유월은>은 어린 종희의 시선을 통해 한국전쟁의 비극을 그려냈습니다.



최후 방어선의 치열했던 전쟁사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됐던 안동 MBC의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은 제48회 한국방송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초기 대한민국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낙동강 전선의 치열했던 전쟁사를 뉴욕 종군기자 마가렛 히긴스의 1인칭 관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배경인 죽령전투를 비롯해 민간인 지계부대의 시작이 된 영주전투, 백병전이 처절했던 문경 이화령전투, 민간군경이 하나 됐던 상주 화령장 전투 등 경북지역의 격전지를 재조명했습니다.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음반 <내 나라 대한> -송소희

젊은 경기소리꾼 송소희가 지난해 현충일에 맞춰 발매한 싱글 앨범 <내 나라 대한>은 나라를 위해 살다 간 수많은 이름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앨범입니다. “긴긴 시간이 흘러도 / 찬란만 할 수 없어도 / 그때 이름들이 우리를 지킨다”, “대한이 살아온 걸음걸음 / 그 힘으로 일어나 / 우리들 사는 이 땅 위에서 꽃을 피우자” 등 몽클한 가사가 돋보입니다. 송소희는 이 곡에 대해 “이 나라를 지킨 이들에게 바치는 헌정곡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는 응원곡”이라 표현했습니다.



전쟁 발발부터 정전 이후까지
다큐멘터리 <특별기획 한국전쟁>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방송됐던 KBS 다큐멘터리 <특별기획 한국전쟁>은 세계 100대 다큐멘터리에 선정됐던 1990년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의 후속작으로, 이후 새롭게 밝혀진 내용과 자료들을 더해 10부작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국, 소련, 영국, 대만 등 각종 참전용사들의 증언을 더했습니다. 1편 ‘분단’을 시작으로 2편 ‘전쟁의 시그널’, 3편 ‘폭풍’, 4편 ‘복진’, 5편 ‘후퇴’, 6편 ‘또 다른 전쟁’, 7편 ‘전쟁의 그늘’, 8편 ‘정전’, 9편 ‘끝나지 않은 전쟁’, 10편 ‘에필로그-반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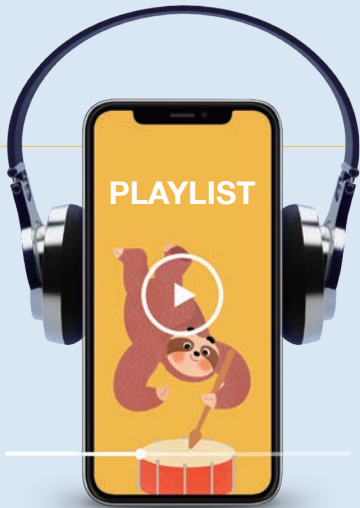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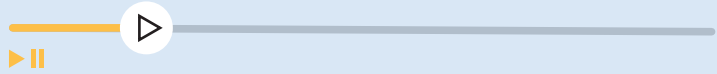


민족의 애환을 노래했던 곡들
음반 <A New Road> -임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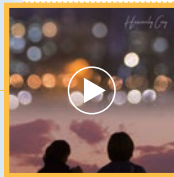
<A New Road>는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2019년 광복절에 발매했던 디지털 싱글입니다. 운동주 시인의 시 ‘새로운 길’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명이라고 하는데, 독립을 염원하며 고달프고 험난한 길을 개척해 나아갔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의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고자 했습니다. 앨범에는 임시정부 시절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불렀던 ‘독립 애국가’를 비롯해 윤심덕 선생의 ‘사의 찬미’,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효시라 불리는 ‘희망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칼퇴를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뒀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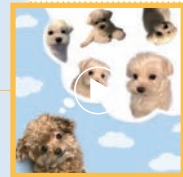
1.



**헤븐리시티
밤샘작업**

야근과 밤샘은 다르지만
먹고 사는 것이 바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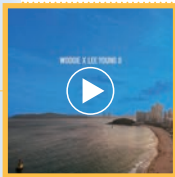
2.



**헛지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아니, 정말 이렇게 야근으로 하루가
지나가면 어떡해...
사라진 내 하루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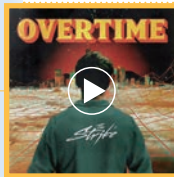
3.



**이영지
HATE ME(feat.유나)**

고등래퍼 이영지가 직장인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해주네요.
이렇게 야근하는 내가 싫다....
싫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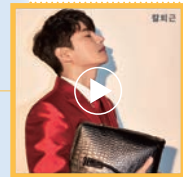
4.



**The Strike
Overtime**

1980년대 밴드사운드와
시원시원하게 뻗는 보컬이 야근하는
직장인 Power Up!
힘내요 직장인들.

5.



**이이경
칼퇴근**

배우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이이경의 신곡.
내일은 칼퇴근 하리~~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는?

7월의 주제는 '휴가 안 가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입니다. 월간내일 웹진 이벤트 게시판에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월간내일 웹진을 통해 추천해준 야그너를 위한 야근송 플레이리스트.
노래를 들으며 거침없이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해볼까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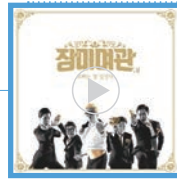


**여자아이들
TOMBOY**

시원하게 내뿜는 노래가 야근하는
내 속을 뽕 뚫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김민정님 추천곡

2.



**장미여관
퇴근하겠습니다**

6시 정각에 “퇴근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꿈꾸며
이하나님 추천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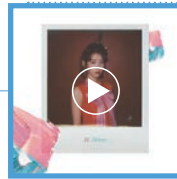


**부석순(Seventeen)
거침없이**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고,
거침없이 야근을 하고,
거침없이 집으로~!!

김현진님 추천곡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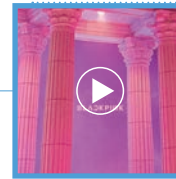


**아이유
이 지금**

가사 중에 “이 하루 이 지금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 부분이 비록
야근으로 힘들지만 소중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오세린님 추천곡

5.



**블랙핑크
마지막처럼**

이 업무가 마지막처럼, 마-마-마-
마지막처럼, 오늘의 마지막 업무인
것처럼!

자기암시곡!!!

이정숙님 추천곡

지구를 지키는 이유있는 편식 함께 '하루 한끼 비건' 실천해요!



2020년 기후 위기 상황에서 기후 비상 사태로 변화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7.6%씩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왜 식단을 바꾸냐고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1/4이 식량시스템에서 배출되고 있고, 그 중 축산업이 80%를
차지하지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채식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식단이라는 이야기죠.
갑자기 지구를 위해 매 끼를 채식할 순 없지만 하루 한 끼라도 이유있는 편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6월에는 늘봄이와 함께 하루 한 끼 채식습관을 길러보자고요!

6월 챌린지 캘린더

CHECK! 챌린지를 실제로 실천한 날을 캘린더에 표시해 보세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지방선거 잊지 말고 투표하기!!	2 	3	4
5 환경의 날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은 꼭 비건 실천하기!!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하지 낮이 짙길다는 하지!	22 	23	24	25 6.25전쟁일
26	27	28 철도의 날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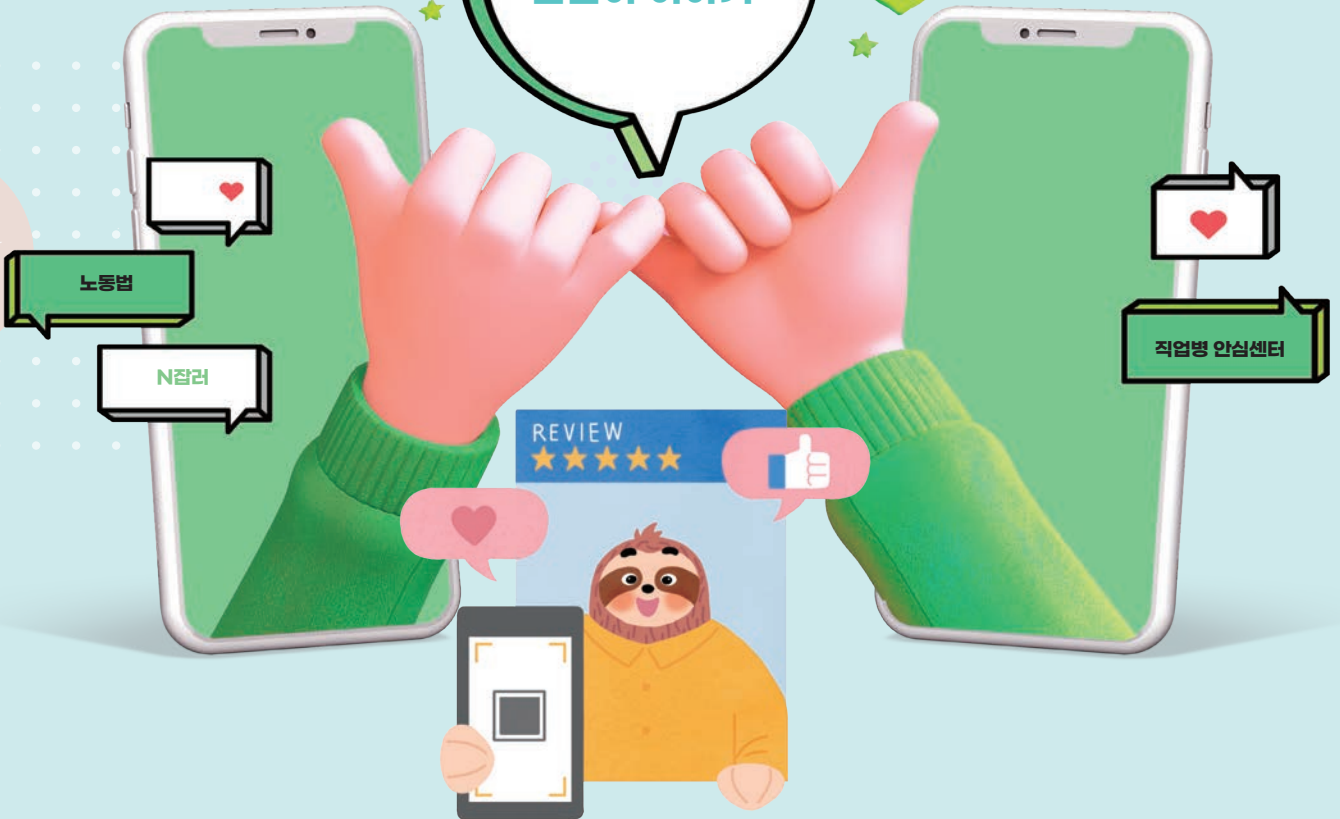


6월 챌린지 캘린더,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가지씩 우리의 내일을 위한 챌린지가 진행됩니다. 6월 챌린지 캘린더를 사진으로 찍어 #월간내일 #그린리추얼 #6월챌린지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음료 상품권을 드립니다. 혼자라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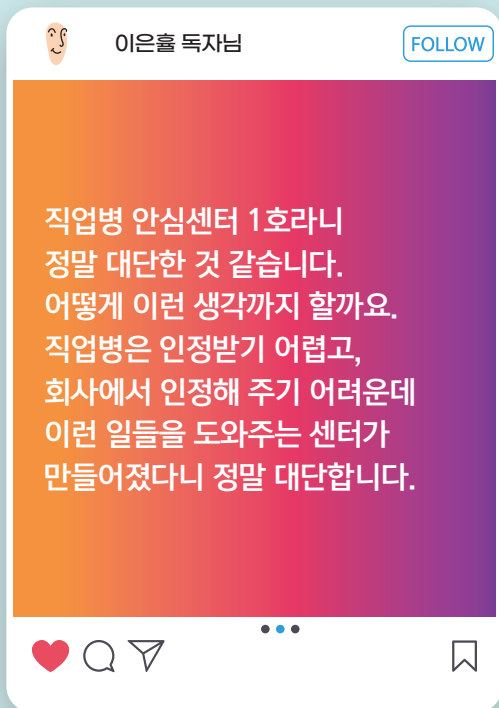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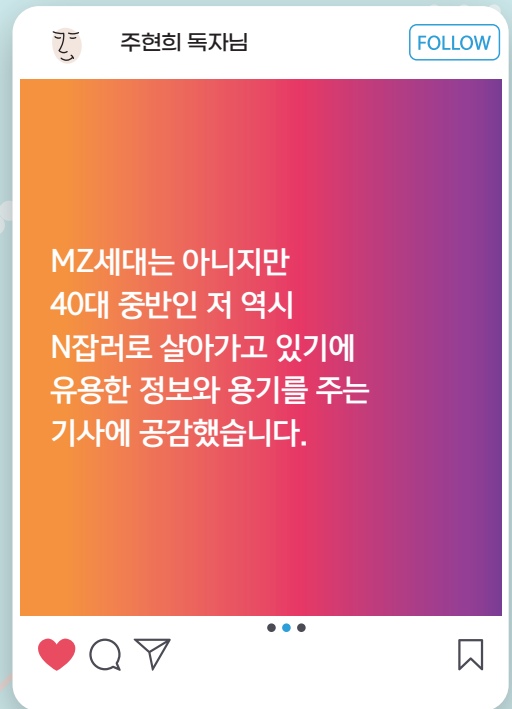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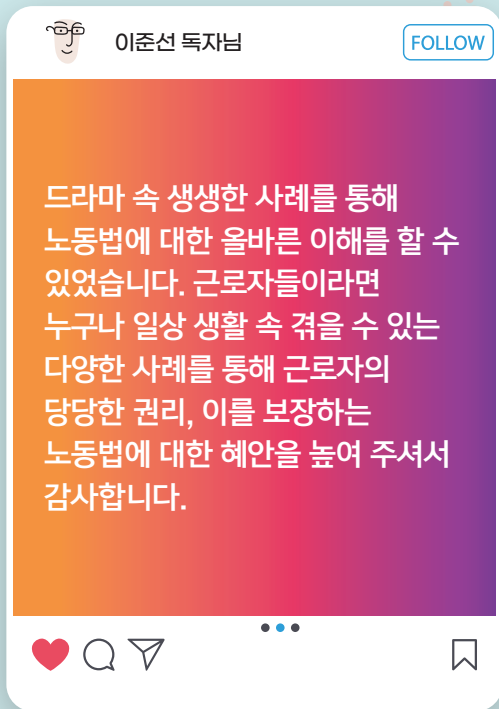
#내일스타그램

이번달
늘봄이 이야기



6월호 그린리추얼 하루 한 끼
비건 챌린지 성공 인증샷과 소감을
#내일스타그램으로 보내주세요.

7월호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주제
'휴가를 떠나진 못한 동료에게' 추천하는
#기억조작송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주세요.



월간내일 편집실로 날아온 독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이야기나 월간내일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EVENT

고용노동부 <월간내일> 이벤트 늘봄이 등장 횟수 맞추기

<월간내일>에는 늘봄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늘봄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횟수를 맞춰주세요.



<참여방법>

- 1 카카오톡에서 '월간내일' 검색해 친구맺기
- 2 늘봄이 등장횟수, 이름, 전화번호를 카톡 메시지로 보내기

이벤트기간: 6월 2일~6월 20일 / **당첨자발표:** 7월 1일 개별발표
당첨자: 20명 / **이벤트 상품:** 디저트 쿠폰

5월 이벤트 당첨자

강태균(9853) 김득순(5928) 김용수(5248) 김지안(4590) 김홍주(9640) 나무향기(0252) 박수빈(6159)
성진선(6778) 이세현(8387) 이지민(0847) 장민(7373) 장은진(6784) 전하영(2602) 조동혁(6468)
지현(6213) 최민지(1218) 최소희(7405) 홍유진(6945) 희정(1369) 부니(4443)

<월간내일>을 만나는 방법

<월간내일>은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의 가치와 중요성,
행복과 기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곁을 지키겠습니다.



www.labor21.kr

① 인쇄 잡지로 만나기

웹진에 접속해 정기구독을 신청하세요.

② 웹진으로 만나기

인터넷 검색창에 '월간내일' 혹은 'www.labor21.kr'을 입력하세요.

③ 카톡 플친으로 만나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월간내일'을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